

여수~고흥 연륙·연도교, 신북항 건설 순항

여수시 국비지원 사업 109건 건의 종합방제센터 등 65건 2400억 반영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 가설, 여수 신북항 건설, 거문도 동도~서도 간 연도교 가설, 전남관 보수 등의 대형 사업들이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는 29일 열린 2014년도 국비 확보 활동상황 보고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건의한 국비지원 사업 총 109건 4543억 원 가운데 65건 2472억원

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주요반영 사업으로는 ▲여수~고흥 연륙·연도교 가설공사 920억원 ▲화양~소라 국지도 22호선 확장 공사 260억원 ▲여수신북항 건설사업 237억원 ▲돌산~백야 연륙연도교 가설 공사 160억원 등이다. 여기에 ▲돌산~우두(국도17호선)도로 확장공사 104억원 ▲확동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83억원 ▲만흥지구 연안정비 사업 60억원 ▲거문도 동도~서도 간 연도교 가설공사 57억원 ▲바다숲 체험센터 건립 30억원 ▲전남관 보수사업 15억원 ▲화양재난 종합방제센터 건립비 61억원 등도 포함됐다.

여수신항 카페리 차량선적 시설 건립비 50억원도 반영되면서 여수~제주 취항 카페리의 차량선적시설 등 항만시설 개량을 통해 크루즈 부두와 연계 운영함으로써 해상교통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국비확보가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도 추가 편성을 위한 전변전에

나선다.

정부가 경제적 타당성 부족을 근거로 들며 국비지원 불가 방침을 결정한 '여수~남해 한려대교' 가설공사에 대해 시는 동서화합 지대로써 지리적 중요성과 남해~여수 간 연계되는 생활권과 세계박람회 개최로 인한 영호남 연계거점 마련의 필요성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삼산면 거문도 삼호교 보강 및 확장사업 152억 원에 대해서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국·도비 지원을 건의하기로 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국회차원에서 국비가 추가 편성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한 정치권 및 중앙부처 간 협력체계 유지와 다각적인 채널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순기에 따라 내달 22일까지 2차 예산안 심의를 거쳐 내달 27일부터 오는 9월5일까지 미결·쟁점사업 집중 심의하게 된다.

이어 재정정책자문회의 자문을 거쳐 국회의결을 통해 최종 예산을 확정한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영어 노래 부르니 재미 있어요”

곡성교육청, 영어캠프

곡성교육지원청이 지난 29일부터 8월 9일까지 10일 동안 곡성중앙초등학교를 비롯한 관내 5개 영어캠프장에서 실시하는 영어체험캠프에 참가한 초등학생들이 영어 노래를 부르고 있다. 캠프장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한국인 영어교사 등 3명의 강사가 초등학생 15명을 한 반으로 편성해 회화와 체험중심으로 지도하며, 캠프 중 우라밀 사용은 금지된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고흥군수협 ‘경영진전조합’ 재탄생

사업장 폐쇄·인원 감축 지구 노력 경영 정상화

고흥군수협(조합장 차중훈)이 ‘경영진전조합’으로 재탄생 했다. 그동안 자본잠식으로 신규 사업투자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오던 고흥군수협이 마침내 경영 정상화를 이뤄냈다.

고흥군수협은 30일 “최근 해양수산부가 전국 92개 일선 수협에 대한 2012년 말 경영평가 결과 경영정상화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기시정조치 또한 해제됐다”고 밝혔다.

고흥군수협은 지난 1997년 IMF체제 이후 강화된 회계기준에 따라 요청당금을 일시에 적립한 결과 거액의 미처리 결손금 발생으로 경영 위기를 겪었으며 지난 2003년 정부로부터 경영개선 계획 이행을 담보로 하는 공적자

금 92억원을 지원받아 경영회생 작업에 들어갔다. 이후 경영개선 계획에 의거 2개 지점 폐쇄 외 어촌계 면세유류분급수 등 일부 사업장 폐쇄는 물론 명예퇴직 등으로 28명의 인원을 감축하는 등 지구노력을 이행해 왔다.

그 결과 2012년말 경영평가에서 21억54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최고 114억5400만원에 달했던 미처리 결손금을 28억4000만원으로 감축했다.

고흥군수협은 올해 상반기에도 10억47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보이고 있으며 수산물유통 판매사업을 강화한 결과 위판고가 578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억원이 증가하고 상호금융 예탁금 2469억원, 정책자금을 포함한 대출금 2075억원 등 각종 지표가 크게 호전됐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벼 병해충 예방 친환경 공동 방제

구례군은 벼 친환경농업단지 병해충 예방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5일간 31개 단지 445ha에 1차 친환경경제 공동살포 작업을 끝냈다. 2~3차 공동 살포작업은 오는 8월에 실시한다. /구례=김동희기자 dhkim@kwangju.co.kr

42억 들여 2015년까지 보성강 정비사업

보성군은 보성을 대야리, 웅치면 유산리 일원의 지방하천 보성강 1.5km구간에 2015년까지 총사업비 42억원을 투입해 생태하천 정비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보성강 생태하천 정비사업은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의 자연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천기본계획에 따

광양 죽림폐기물처리장 건립 탄력

시, 민간업체와 소송서 승소

광양시가 폐기물처리장 건립 문제를 놓고 민간업체와 벌였던 소송에서 승소해 생활폐기물처리장 건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

광양시는 30일 “폐기물처리장 건립과 관련 E사와 별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최근 2심에서도 승소했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시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광양읍 죽림리 124만8893㎡ 규모로 시가 직접 ‘죽림생활폐기물처리장’을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 2009년 7월13일 죽림리 해당 부지를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지구로 지정고시했다.

부지매입비 43억원 등 총 744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부지매입에 착수하는 등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E사가 해당 부지 안에 자신들이 운영할 의료폐기물처리장을 짓겠다며 도시계획시설 지구로 고시한 직후 해당 부지 일부를 사들이면서 시의 폐기물처리장 건립 계획은 큰 차질이 생겼다.

이에 따라 시는 의료폐기물처리장 건립을 불허했고 E사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지난 2012년 11월 패소했고 항소했으나 최근 이마저 패소했다.

시 관계자는 “재판부가 민간사업자의 사익보다는 주민들의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 시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안다”며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높아 폐기물처리장 사업이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전북

“광주~대구 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남원시의회, 대정부 건의안 채택... 靑·정치권 전달

남원시의회가 지난 29일 광주~대구 간 동서내륙철도 개량건설사업과 관련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는 물론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에 발송했다.

광주~대구 간 동서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예초 2011~2020년까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 포함시켰으나 최근 2016년~2025년 제3차 동서내륙 철도망구축 개량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안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남원시의회는 동서 간 내륙철도 사업이 준공되면 영·호남 간 교류증대 및 물동량 수송 원활과 담양, 순창, 남원, 장수, 함양, 거창, 함진, 고령 등 낙후된 내륙지역의 균형발전도 도모할 수 있고 목포, 여수, 광양, 창원, 구미, 울산, 포항 등 인근 대도시와 단시간 내 접근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난 대통령선거운동 때 국가의 균형발전 전략에 맞게 광주~대구 간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채택됐을 때 광주 및 대구 시민들과 인근 6개 시·군 426만여 명의 주민들은 부푼 희망과 기대를 가지게 됐다”며



광주~대구간 내륙철도

“그러나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의하면 동서내륙 철도망 구축계획 사업은 2015년 교통량 조사 등의 용역을 실시해 국가철도구축 실효성이 입증되면 2016년~2025년까지 제3차 동서내륙 철도망구축 개량 사업으로 추진 검토하겠다는 의견에 신뢰마저도 무너지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동서내륙철도 건설 사업의 국가철도망 구축사업계획 우선 사업 선정

▲공약사업인 광주~대구간 내륙철도 건설 사업 제2차 계획 포함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들 의원들은 “국토교통부에서는 대통령의 선거 공약 사항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면서 신뢰의 금이 가고 있다”며 “전라북도 남원시의회 의원일들은 426만 여명의 주민의 의지를 모아 강력히 건의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달빛동맹’을 맺고 양 지역 공동사업을 추진중인 광주주시와 대구광역시 대구~광주 간 내륙철도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광주~담양~함양~대구를 연결하는 191km의 단선철도를 건설하는 이 사업에는 4조8987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노후대비 리더 양성 교육 순창, 100세 시대 맞춤

건강 100세 시대에 대비하는 노후설계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순창군이 이번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리더 양성교육을 첫개강했다.

군은 금과면의 노인회장, 이장, 부녀회장 등 70여명의 지역 리더를 대상으로 30일부터 1박2일 과정의 제1기 노후준비 리더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이 과정은 건강강의를 비롯해 순창만의 건강실천프로그램인 건강체조, 명상요가, 소나무술 산책 등으로 이뤄졌으며, 국악한마당과 고추장 놀이 문화도 함께 체험하면서 순창군에 대해 재인식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단신

서남권 공설화장장 조성 주민 갈등 고조

정읍과 부안, 고창을 중심으로 한 서남권 공설화장장 조성 문제를 둘러싸고 입지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주로 김제 시민으로 구성된 ‘서남권 공설화장장 시설 반대위원회’는 30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정읍시 김곡면과 김제

부안,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소양교육

부안 상서면이 30일 지역 노인들의 자살예방과 건전한 읍주문화 정착을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을 대상으로 소양교육을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노인일자리사업의 기본방향, 자세, 안전교육 및 건강관리 방법 등에 대해 실시했다.

/부안=정재용기자 jji0681@



덕음산 솔바람길 인기

남원시민들의 휴식처인 덕음산 솔바람길에 최근 주말 관광객까지 찾으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소나무 숲 사이로 길이 1190m인 솔바람길은 덕음산 솔향 산림욕장과 덕음봉 가는 길과도 연결돼 있다. 전망이 좋은 곳에 전망대 2개소와 쉼터 11개소를 조성해 멀리 펼쳐져 있는 남원시내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고창 일반산단 조기 완공기로

우량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682억 투입 공정률 65%

고창군이 고급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추진중인 고창 일반산업단지를 조기에 완공할 방침이다.

고창군은 30일 “총사업비 682억원을 투입, 고수면 봉산리 일원에 84만 8819㎡의 규모로 조성 중인 일반산업단지의 현재 공정률이 65%로 조만간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반산업단지지는 지난 2010년 9월 지정승인 고시됐으며,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금액을 정한 뒤 지난 2011년 11월 토지보상을 완료했다. 이후 2012년 11월 문화재 시굴·발굴 조사가 마무리된 후 공사는 단지 내 성토, 옹배수로, 우·오수관로 등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65%에 이른다.

또 국가예산 138억원이 지원되는 기반시설은 산업단지전용 진입도로 개설 104억원, 공급용수 시설 23억원, 오폐수 관로 11억원 등이 있으며, 올해 40억이 예정된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관련부처 협의가 완료돼 다음달 착공예정이다.

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총 투자대비 생산유발 파급효과가 7537억원에 육박하고, 고용창출은 약 3800여명, 소득유발은 380억원에 이를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산단 조성과 기업유치를 통해 인구 고령화 및 감소 등 경기침체의 사각지대인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

2013년 정읍시민의 장 후보자 접수

정읍시는 2013년 정읍시민의 장 후보자를 접수한다.

시는 지역의 명예를 드높이고 남녀노소 열정과 노력으로 시정발전에 헌신·봉사한 시민과 출향인사 등을 대상으로 2013년 정읍시민의 장을 선별한다. 시민의 장은 교육·예술·언론 등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한 문화장을 비롯해 새마을장·산업장·공익장·체육장·애환장·효행장·병역시민의 장 등 모두 8개 부문이다.

추천대상은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고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단, 애환장과 시민의 장은 예외)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전주서 내달 한식 경연대회 열려

음식의 본고장인 전주에서 외국인 셰프들이 참가하는 한식 경연대회가 열린다.

이번 대회의 명칭은 ‘K-FOOD 월드 페스티벌’로 외교부, 전북도, 국제한식조리학교가 공동으로 마련한 행사다. 미국과 멕시코, 일본, 중국, 호주, 프랑스, 영국 등 10개국에서 예선전을 거쳐 선발전 각 나라의 우승자(10명)들은 8월12~17일 전주대학교 국제한식조리학교에서 갈고닦은 한식 요리솜씨를 뽐낸다. 이번 경연은 전북의 특산물을 소재로 예능·체험 형식으로 흥미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시 일반인에게도 큰 호응이 기대된다. /전주=박금석기자 전북취재본부장